

나의꿈 나의미디 ~

C a k e w a l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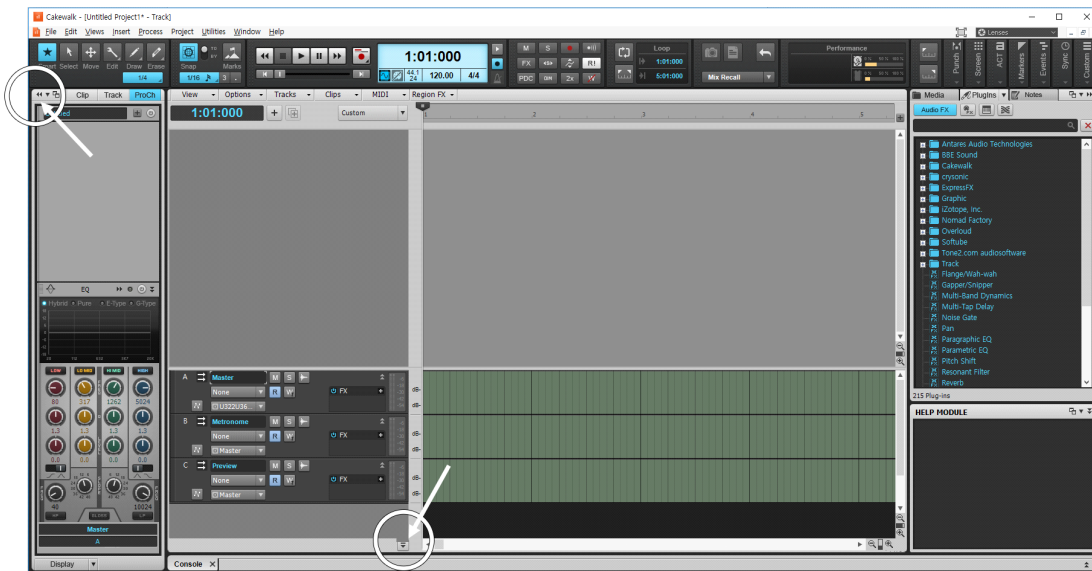
by Bandlab

저자 박운영

Chpt2. 미디어편집과 익스포트

1 부 단순화 시키기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그렇듯이 케이크워크 역시 자신의 기능을 뽐내기 위해 첫 화면부터 다양한 편의 기능과 멋진 모양새를 과시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복잡하게 보여지니 우선 화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에 표시된 버튼들을 눌러 화면에서 사라지게 합니다(감춰진 창들의 기능은 편의 기능들로서 기본 메뉴에 이미 존재하거나 나중에 중급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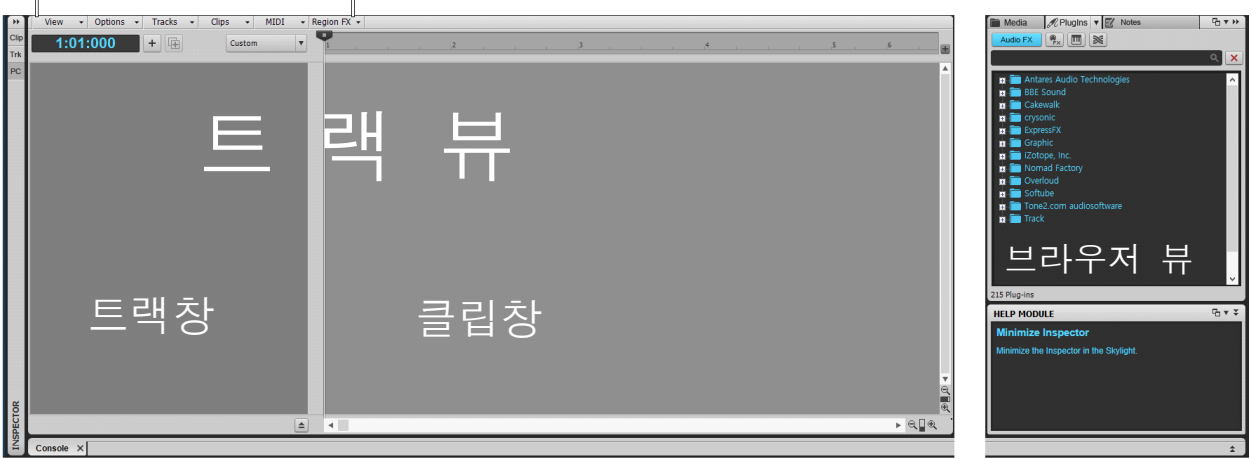
[케이크워크의 첫 화면, 도우미 창 닫기]

브라우저뷰[☞ B]는 가상악기를 넣거나 Wav/Mp3/비디오/샘플루프 파일과 오디오 이펙터를 집어넣을 때 사용합니다.

컨트롤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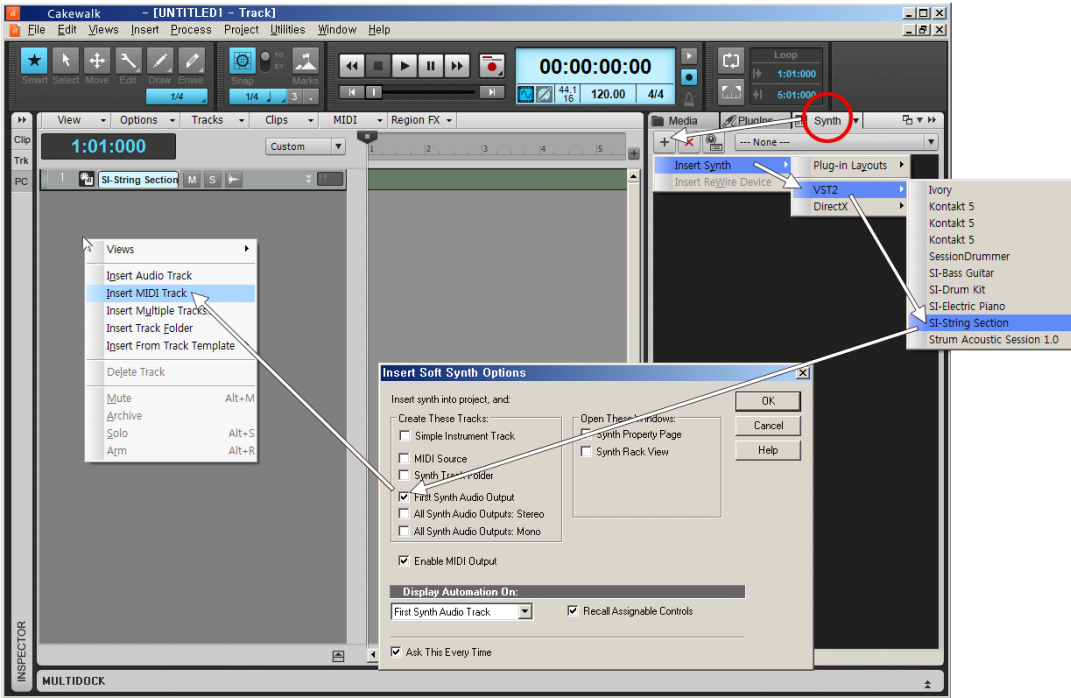
트랙뷰 옵션들



[트랙뷰와 브라우저창만 남긴 단순화된 화면]

2 가상악기와 트랙 준비

1 악기 불러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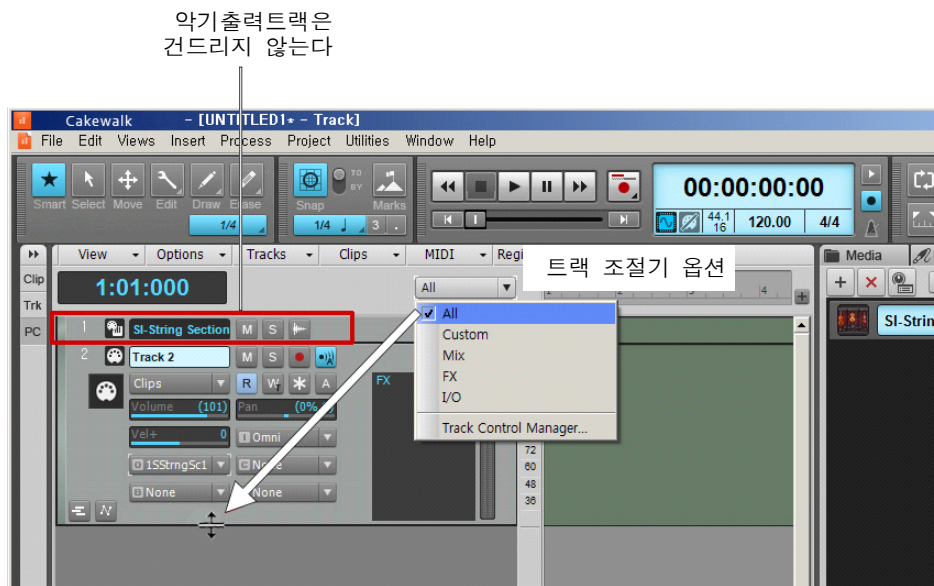


[가상악기 불러들이기]

브라우저뷰에서 Synth 탭을 클릭 후 위 그림과 같이 SI-String Section(케이크워크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가상악기)을 불러들입니다. 해당 대화상자에서 'First Synth Audio Output'만 체크합니다. 이어서 트랙뷰 위를 우측 클릭하여 미디 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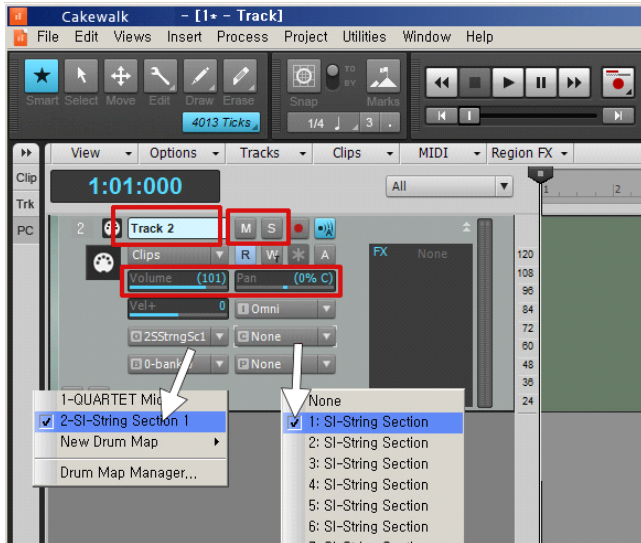
② 트랙 설정

결국 다음 그림과 같이 2개의 트랙(악기출력트랙과 미디트랙)이 생기는데 제1번은 가상악기가 담겨 있는 악기출력트랙이고 그것을 연주할 노트들은 제2번 미디트랙에 입력합니다. 트랙창의 머리 위에 있는 '트랙 조절기 옵션'을 All로 바꾼 후 미디트랙 아랫 경계선을 끌어 내리면 다양한 파라미터(조절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출력트랙과 미디트랙]

'Track 2'이라 써 있는 곳이 트랙이름을 기입하는 곳이고, 'M과 S'는 Mute와 Solo이고, 그 아래의 'O'는 Output(가상악기 선택), 'C'는 Channel(가상악기 내부의 특정 채널 선택)입니다. 일단 Output은 SI-Strings1을 선택하고 Channel에는 1을 선택합니다. 더 나아가서 2대의 악기로 듀엣 연주를 하고 싶다면 트랙을 하나 더 만든 후 Channel을 2로 하면 됩니다.



[미디트랙 추가하기]

Auto Track Zoom: 한 트랙의 경계선을 조절하면 모든 트랙들이 함께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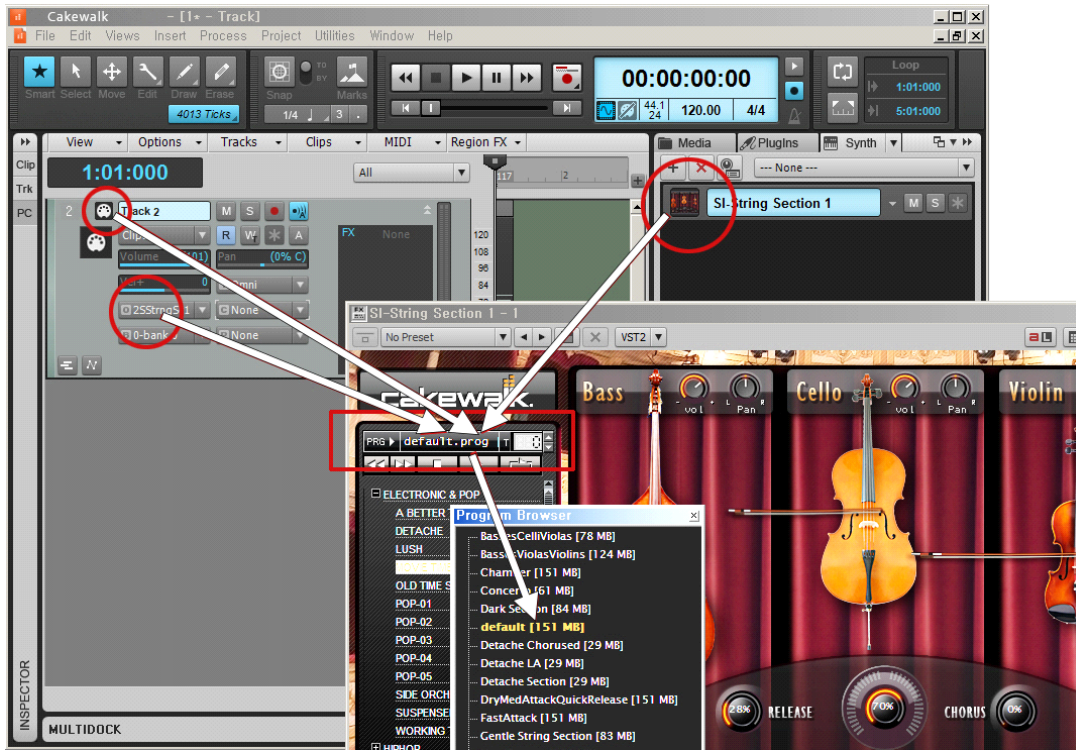
트랙 파라미터에서 미디 아이콘이나 아웃풋을 클릭해도 되고 브라우저뷰에서 가상악기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 일단 악기를 연 후 'Prog'를 클릭하면 몇 개의 샘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 이름이나 더블클릭하여 로딩합니다(대부분의 가상악기들은 이렇게 악기 샘플을 로딩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트랙 라인(Strip)의 아래 폭을 조절하는 법은 트랙의 경계선을 드래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view탭 View -의 'Auto Track Zoom'을 체크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트랙의 폭이 동시에 넓어집니다.

3 가상악기의 화면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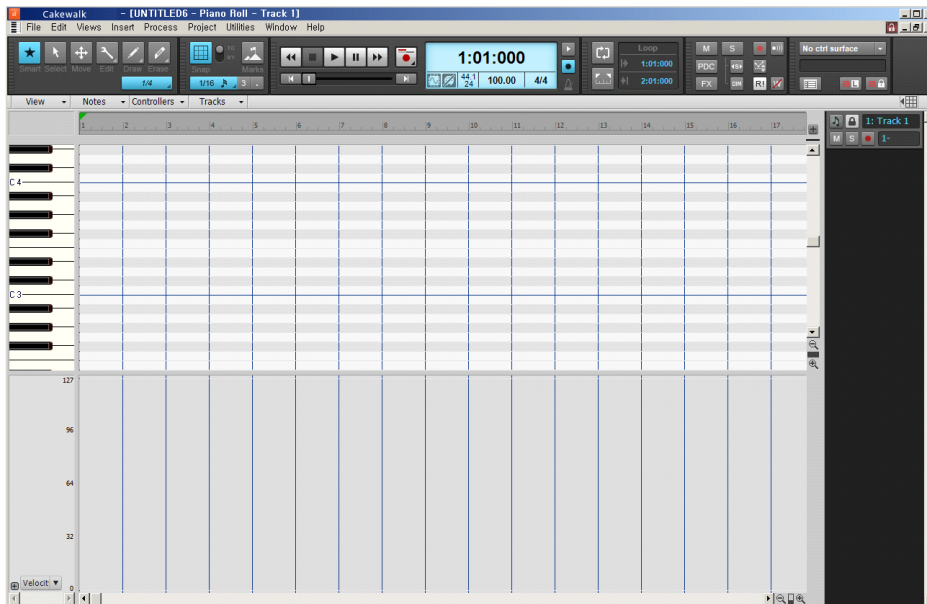
가상악기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트랙 파라미터에서 미디아이콘이나 아웃풋을 클릭해도 되고 브라우저뷰에서 가상악기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 일단 악기를 연 후 'Prog'를 클릭하면 몇 개의 샘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 이름이 더블클릭하여 로딩합니다. 대부분의 가상악기들은 이렇게 악기 샘플을 로딩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Chpt2. 미디편집과 익스포트



[가상악기의 창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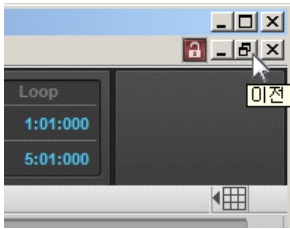
4 피아노를뷰 준비



[피아노를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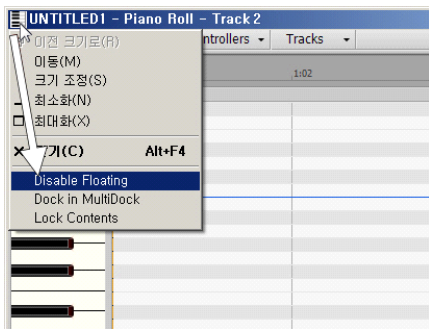
케이워크 Views 메뉴의 Piano Roll View(🎹 Alt-3)를 선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피아노를

뷰가 화면을 꽉 채울 겁니다. 대부분의 미디음악 작업은 전통적인 악보가 아닌 이와 같은 피아노 격자 위에 막대처럼 생긴 노트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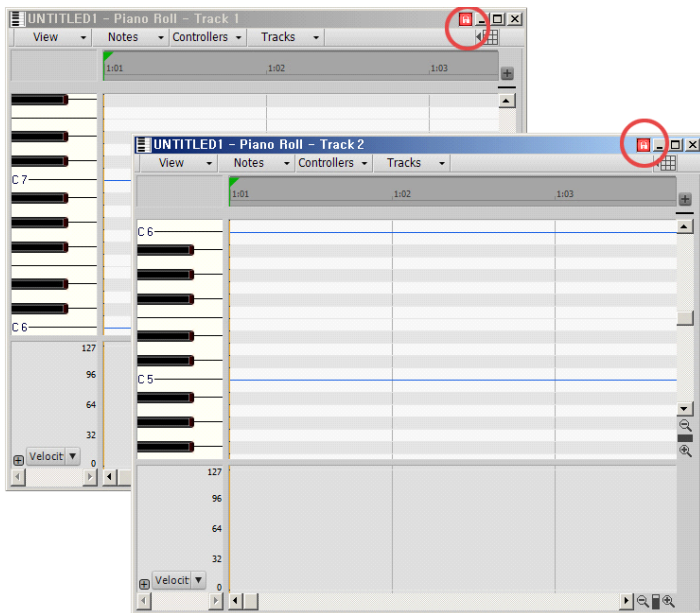
만일 여러분이 2대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피아노롤뷰의 맨 오른쪽 끝의 '이전 크기로 복원'을 클릭 후 제2모니터로 드래그하여 작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뷰의 크기 줄이기]



그러나 1대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화면 맨 왼쪽 위의 뷰 아이콘을 클릭한 후 'Disable Floating'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처럼 작업뷰를 옮길 때 Ctrl-Tab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대 모니터 상에서 쉽게 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옵션을 선택하고 나면 кей크워킹는 이후부터 계속이 방식으로 뷰를 엽니다.

[1대의 모니터에서 창을 이동(Ctrl-Tab)할 수 있는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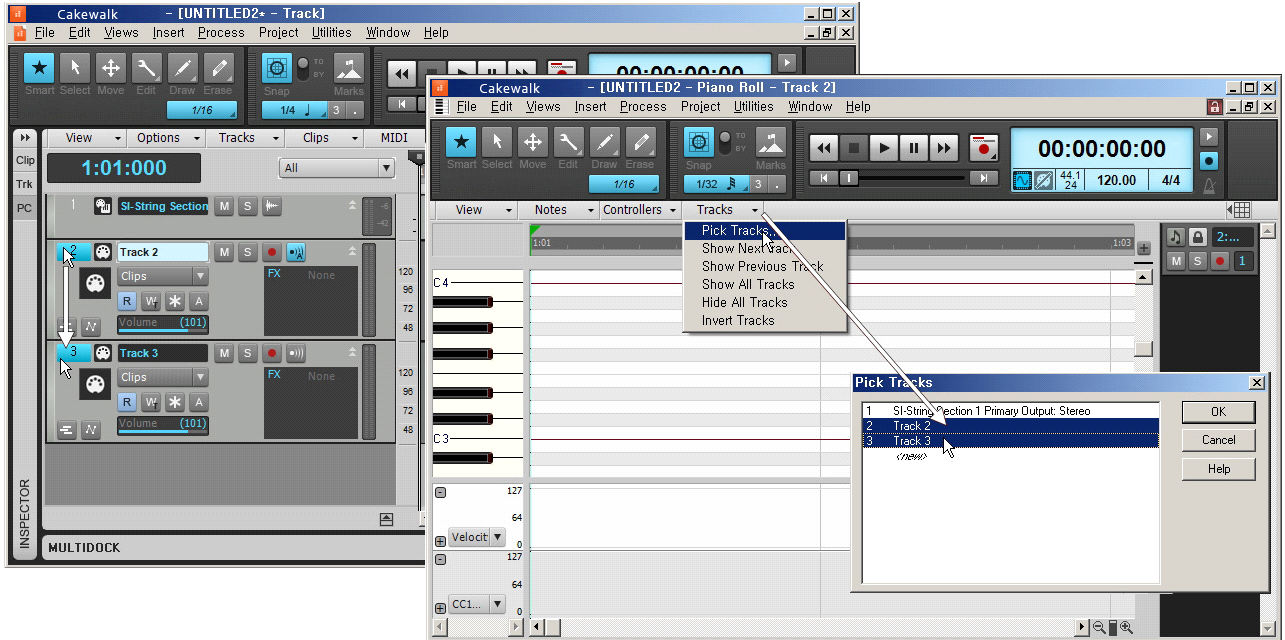


만일 여러개의 피아노롤뷰를 열어두고 싶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Lock 버튼을 눌러두면 됩니다.

[여러개의 피아노롤뷰 열어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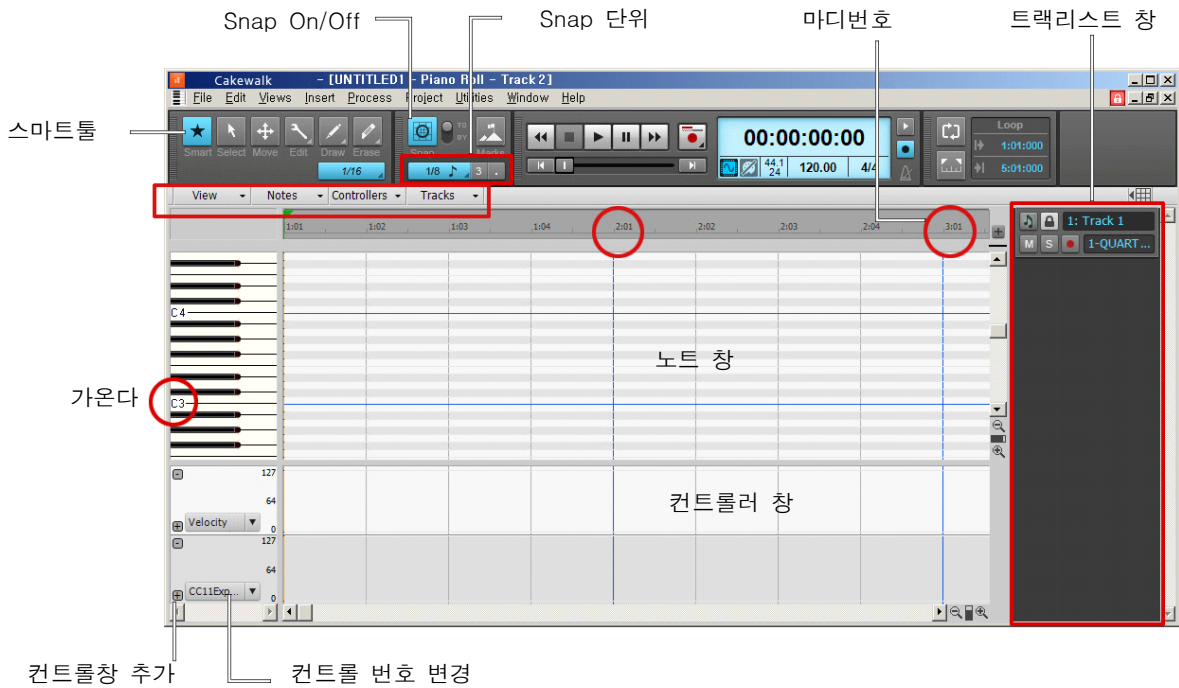
또, 한개 피아노롤뷰에서 여러트랙을 작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열 수 있습니다. 트랙뷰의 트랙번호를 드래그 선택한 후 Alt-3를 누르거나 피아노롤뷰의 Track 탭에서

'Pick Tracks'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악보뷰(🎹 Alt-6)를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트랙의 피아노롤뷰 열기]

5 노트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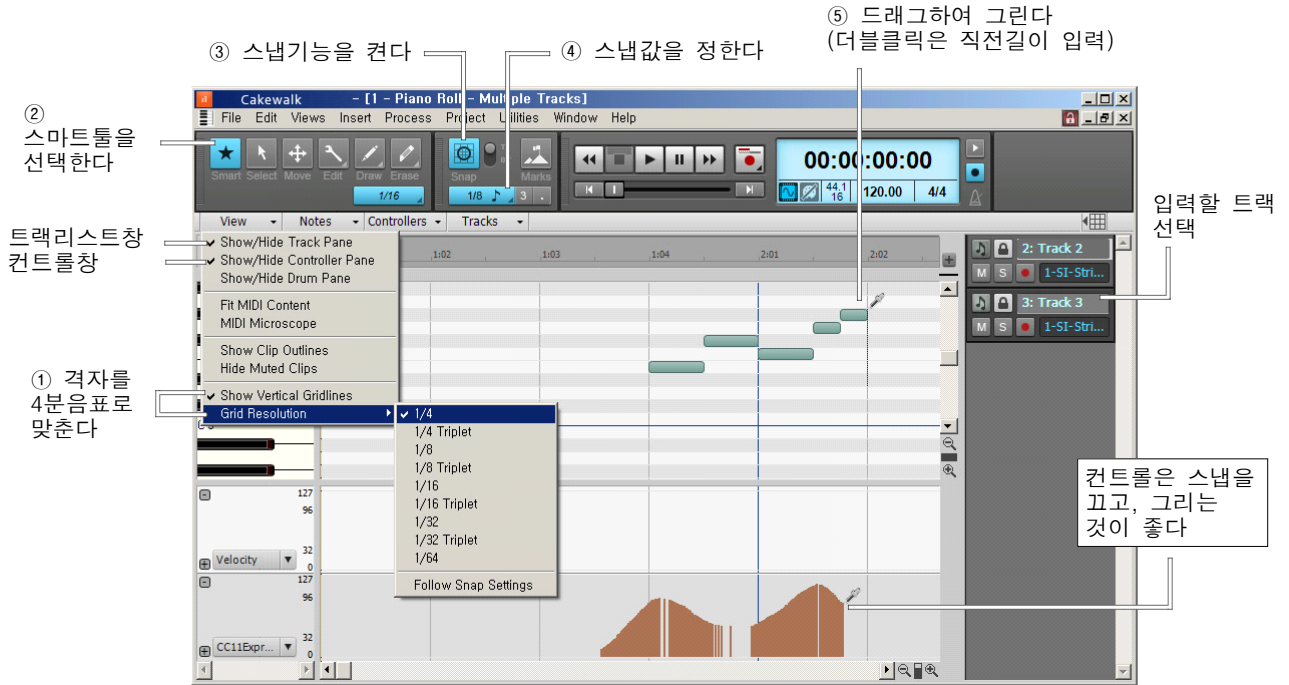


[피아노롤뷰의 개요]

Chpt2. 미디편집과 익스포트

위의 그림은 피아노롤뷰의 주요 명칭들이며 이어서 노트(Note,음표) 입력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가 C3로 표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nnn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선 스냅(위치조정기능) 단위는 16분이나 32분 정도로 선택한 후, 다음 그림의 순서대로 노트와 컨트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노트 입력하기]

----- [중략] -----

Chpt3. 컨트롤바

케이워크의 최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컨트롤바 입니다. 이곳에서는 입력도구의 선택, 연주/녹음 조정, 현재 위치/상태의 확인, 반복구간 설정, 화면상태 선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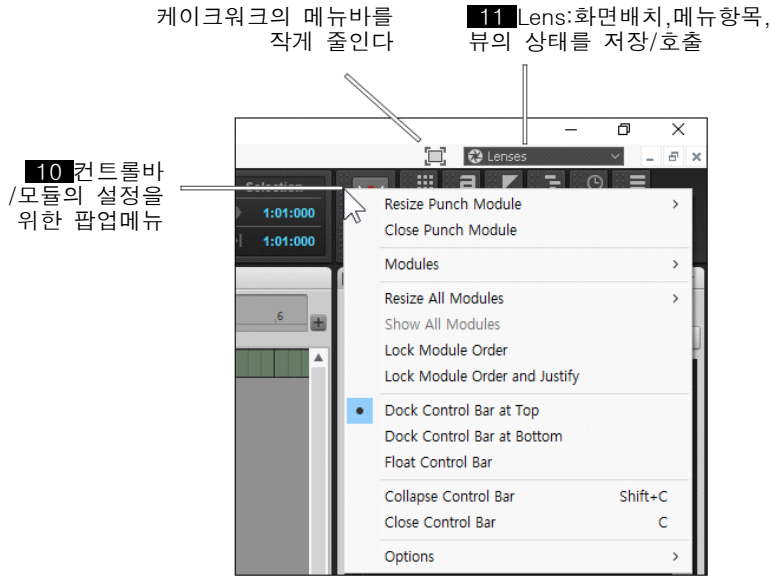
사실 컨트롤바에 보여지는 기본 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초급자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기도 한데, 초급 6개 모듈(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외의 것들은 잘 쓰지 않거나 숙련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컨트롤바의 초급 모듈들]



[컨트롤바의 고급 모듈들]



[컨트롤/모듈 팝업메뉴와 Lens 기능]

이 밖에도 모듈 위를 우클릭하면 컨트롤바/모듈의 설정을 위한 팝업 메뉴가 나타나며 케이크워크의 맨 우측 상단에는 전체 화면과 메뉴 상태를 선별, 정리해주는 Lens 모듈이 있습니다.

1 툴모듈

트랙뷰를 비롯한 여러가지 뷰와 창(뷰 안의 작은 공간들)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우스 도구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각 툴의 단축키는 마우스를 갖다대면 표시되고, 클립창/피아노롤뷰 위에 마우스가 있을 때 'T'를 누르면 툴모듈이 펼쳐집니다.

1 스마트툴 ★

이 툴은 혼자서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게 고안되었기에 다른 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클릭/드래그로 클립과 노트를 선택하거나 옮길 수 있고, '우클릭-드래그'로 올라미를 씌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우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고, 노트를 우클릭하면 삭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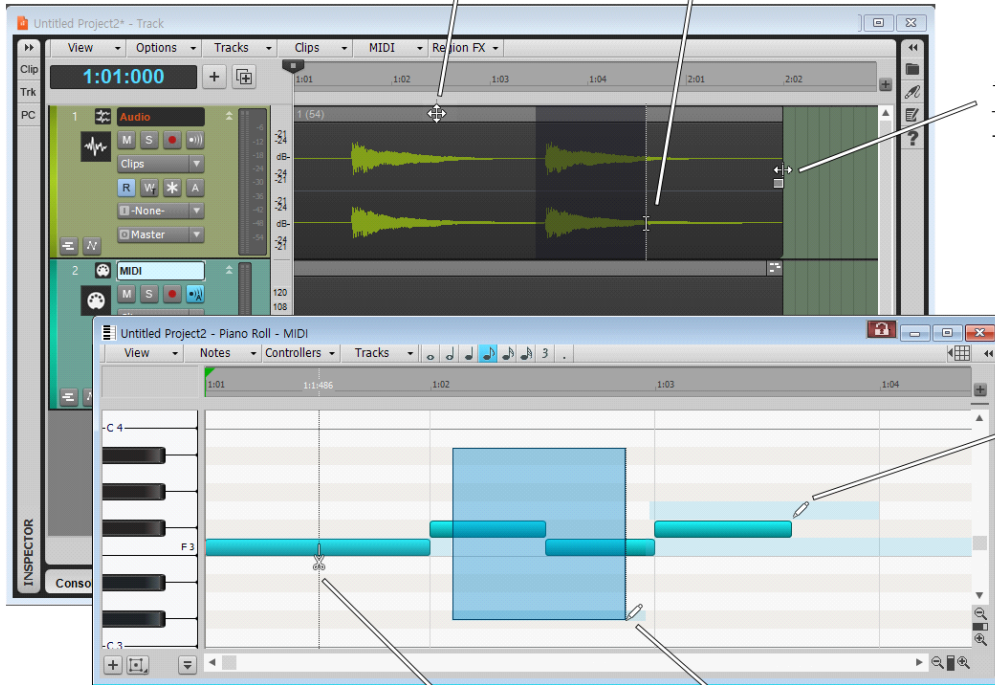
또, Ctrl이나 Shift키를 누른 채 클립과 노트를 클릭하면 추가선택이나 선택제외가 되고, 'Alt-클릭'을 하면 2개로 분리가 되며, 클립 속의 일정 구간을 'Alt-드래그'하면 새로운 클립으로 독립 분리됩니다.

또, 오디오클립의 머리나 꼬리를 'Ctrl-Shift-드래그'하면 비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Alt-Shift-드래그'하면 잘라 옮기기가 됩니다.

Chpt3. 컨트롤바

클립 상단을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고, Ctrl-드래그로 복사하거나 Alt-클릭으로 자를 수 있다

클릭 중앙을 드래그하여 일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Alt-드래그 하면 독립 분리된다.



클립 꼬리를 Ctrl-Shift-드래그하여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빈 공간을 드래그나 Alt-클릭하여 노트를 입력할 수 있다

노트 위를 Alt-클릭하여 자를 수 있다

'우클릭-드래그'하여 노트들을 옮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Ctrl-드래그(or클릭)하여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툴의 여러 기능들]




② 선택툴 , 이동툴

선택툴은 클릭,드래그, Ctrl(Shift)-클릭, Ctrl(Shift)-우클릭드래그 등으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동이나 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툴은 대상을 클릭 또는 Ctrl(Shift)-클릭하여 선택한 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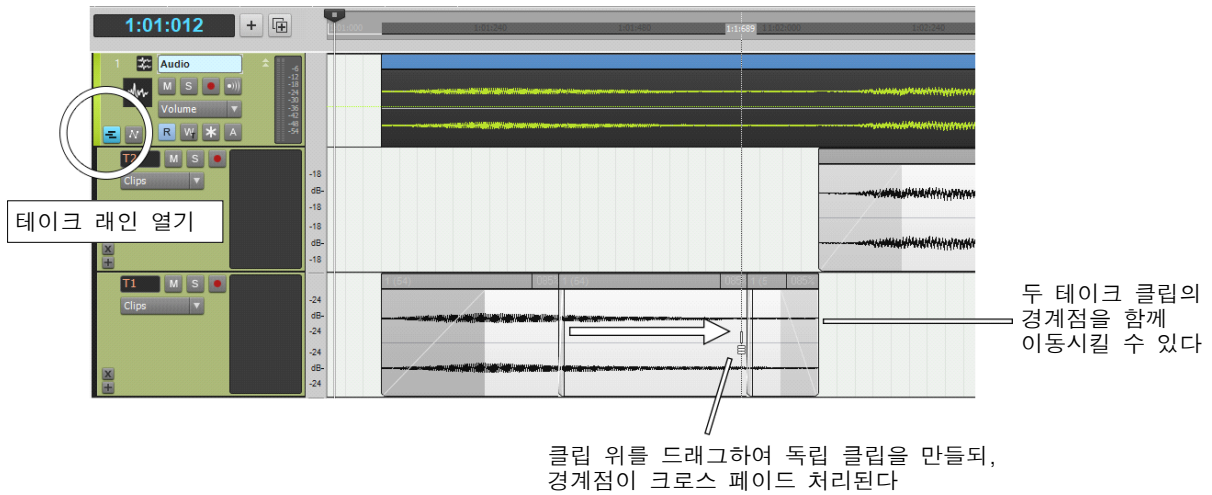
이 두 도구는 사실 해당 작업을 오랫동안 많이 해야할 때 쓰일 뿐, 대부분 스마트툴이 더 편합니다.

③ 편집툴, 시간툴, 캠프툴, 가위툴

이 4개 툴은 클릭하거나 단축키 F8을 누를 때마다 전환됩니다. 편집툴 은 클립의 앞뒤를 줄이거나 늘릴 때 사용하고, 시간툴 은 클립길이를 비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며, 가위툴 은

클립을 자르거나 클립의 내부 구간을 드래그하여 독립클립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캄핑툴 은 오디오트랙 밑에 딸린 테이크 라인(여러벌의 녹음을 받는 서브 트랙)에서 사용하는 툴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크로스페이드되는 독립클립을 만들거나 경계선을 함께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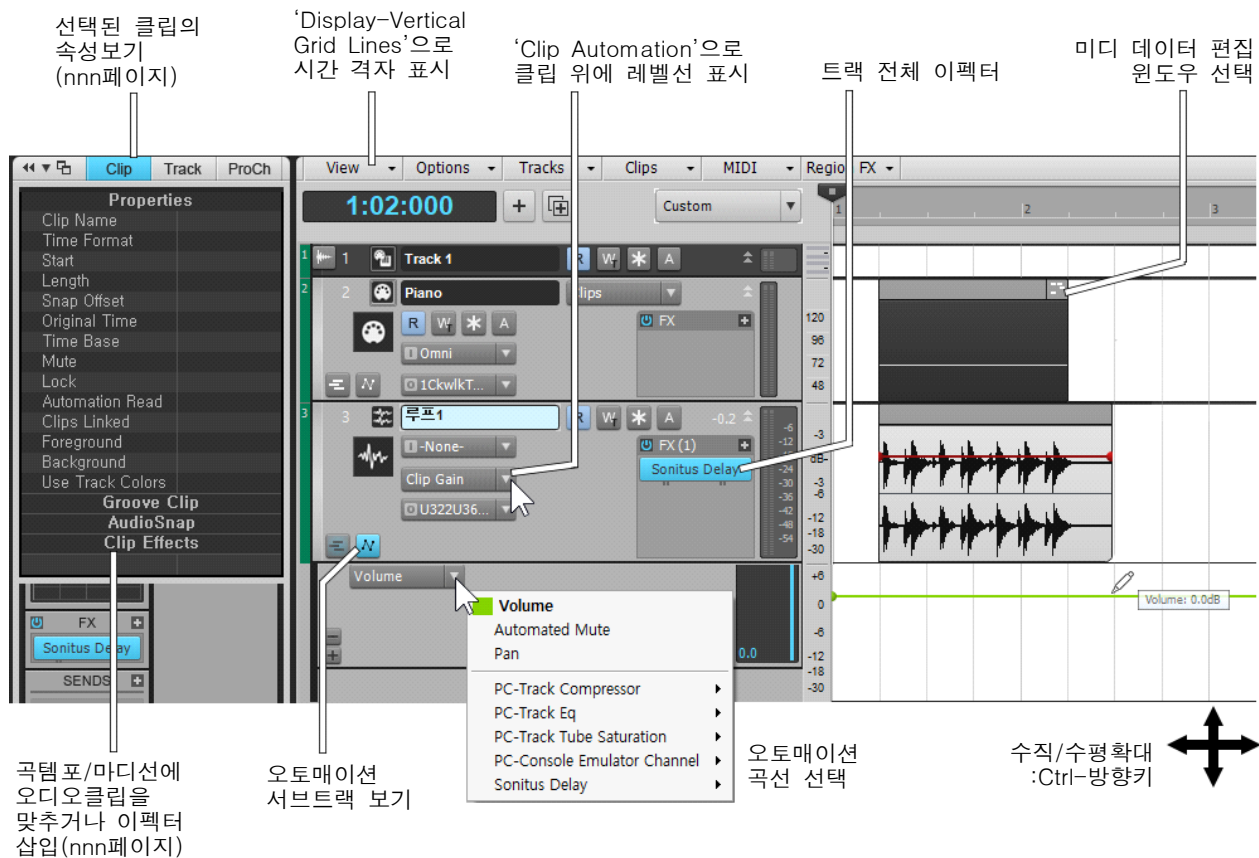
[캄핑툴의 기능]

----- [중략] -----

Chpt5. 클립과 오토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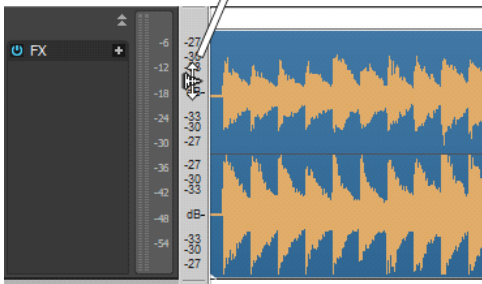
미디편집은 대부분 피아노를 뷰에서 이루어지며 클립 창에서는 곡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클립의 복사/붙이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디오 편집은 대부분의 모든 작업이 클립창에서 완성됩니다.

1 클립창 화면 관리



[클립창 화면 관리]

위아래 드래그: 클립 확대
더블클릭: 초기화



또, 다음 그림과 같이 레벨 게이지를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클립의 내용을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겉보기만 확대될 뿐 실제 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클립 레벨 확대하기]

2 클립의 기본 편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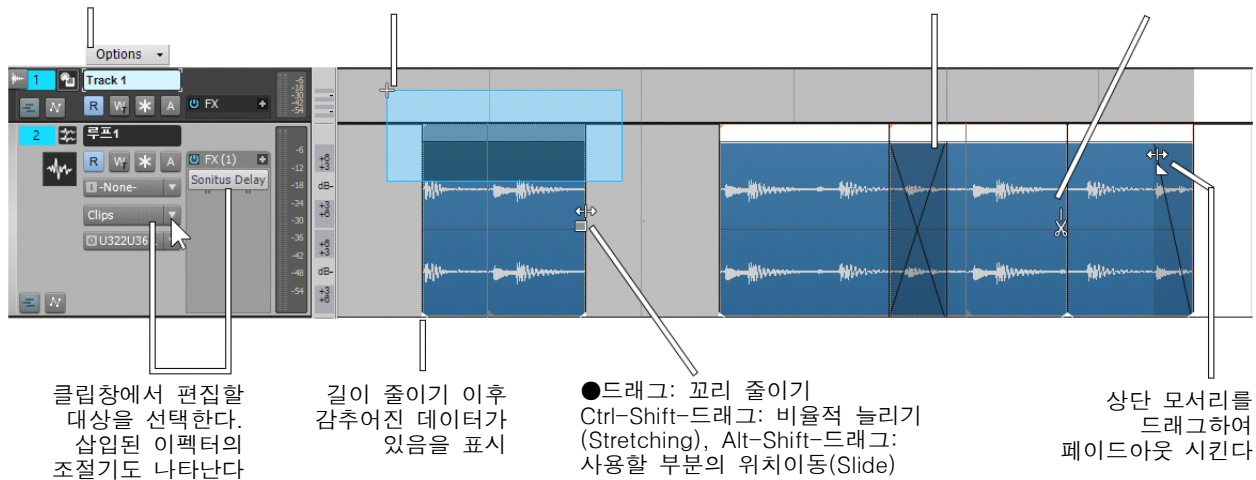
가장 많이 쓰이는 클립 편집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에도 클립 속성을 변화시키려면 속성 인스펙터(nnn 페이지)를 사용하고, 트랙창의 Clips탭(nnn 페이지)으로 바운싱/템포수정/스테레오-모노전환/그룹짓기 등이 가능한데 뒷 절에서 공부할 클립 팝업메뉴와 중복된 것들의 많습니다.

'Auto Crossfade'로
결친 두 클립을 자동
크로스 페이드 시킨다

'우클릭-드래그'로 여러
클립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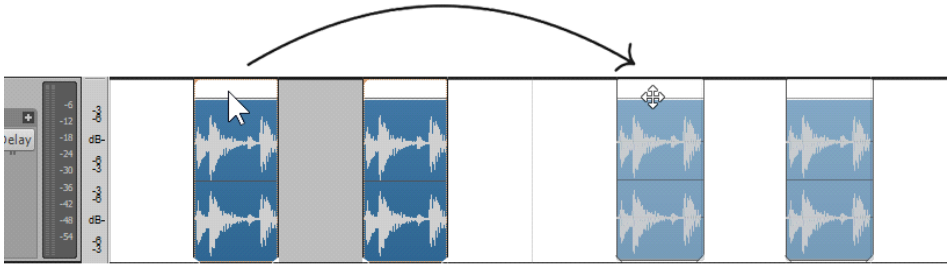
페이드곡선을
우클릭하여 곡선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Alt-클릭'으로
자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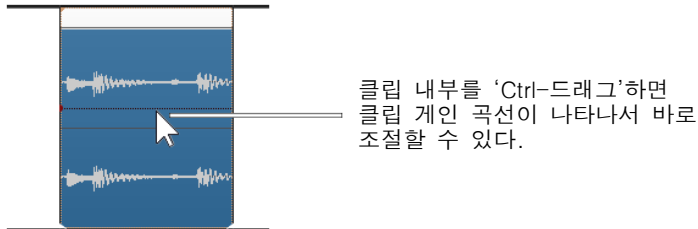
[클립 편집의 기본 (스마트툴 일때)]

'우클릭-드래그'로 올가미 씌워 선택한 클립들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고, 'Ctrl-드래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Edit메뉴→Copy/Paste명령'과 동일합니다.



[선택된 클립들의 상단부를 '드래그' 또는 'Ctrl-드래그'로 옮기거나 복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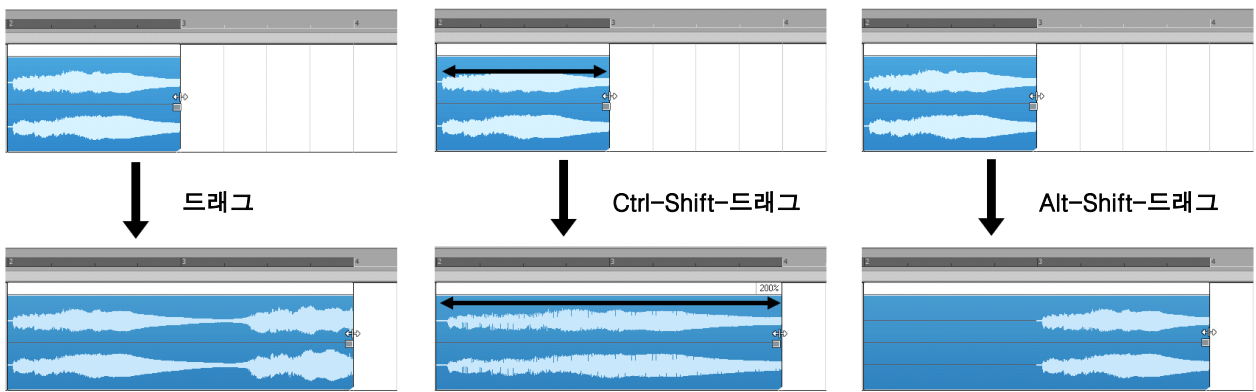
클립의 내부 볼륨인 게인(Gain)을 조절하려면 원래는 편집필터에서 'Clip Automation'을 선택해야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Ctrl-드래그'로 즉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 내부를 'Ctrl-드래그'하면 클립 게인 곡선이 나타나서 바로 조절할 수 있다.

[클립 게인(내부볼륨) 조절하기]

▶ 늘리기 (꼬리,스트레칭,슬라이드)



[꼬리 늘리기: 가려진 부분을 드러낸다]

[스트레칭: 비율적으로 늘린다]

[슬라이드: 보여진 부분을 옆으로 이동시킨다]

3 클립 팝업메뉴

클립 위를 우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열립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미 앞서서 공부한 것들은 참조 페이지로 설명을 대신하였습니다.

복사,붙이기,자르기

클립을 편집할 윈도우 열기

클립의 위치/길이 고정 (nnn페이지)

①테이크 트랙에 여러벌 녹음된 것 중 해당 클립을 채택

클립 뮤트/해제

구간 이펙터 넣기 (nnn페이지)

클립 이펙터 넣기 (nnn페이지)

클립 이펙터창 열기

템포가 동기되는 그루브 클립으로 만든다(nnn페이지)

클립을 이펙터로 처리하기 (nnn페이지)

클립 이름 변경

커서위치를 기준으로 클립 나누기

오디오스냅 공유기준선에 따라 퀀타이즈(nnn페이지)

바운싱 처리(nnn페이지)

오디오스냅 공유기준선(Pool)에 따라 여러개로 자르기(nnn페이지)

숨겨진 클립 내용을 완전 삭제 (nnn페이지)

클립을 모노로 변환

스텝시퀀서와의 연결을 끊고 일반 미디클립으로 만든다 (nnn페이지)

미디클립을 스텝시퀀서 클립으로 만든다(nnn페이지)

현재 선택된 1개 클립과 연결된 모든 클립을 선택대상으로 만든다 (연결클립이 없으면 사용불가)

연결상태 해제(연결클립이 없으면 사용불가).선택된 클립들끼리 새로운 그룹(New)만들것인지 모두 독립시킬 것인지(Independent) 선택가능

선택된 클립(들)을 그룹으로 묶거나 그룹 해제(복사/이동이 함께 이루어짐)

루프샘플의 원래 템포로 되돌린다(nnn 페이지)

현재위치를 스냅 옵셋(어긋난 위치선)으로 정한다(nnn페이지 참조)

클립의 디스크 저장 정보

오디오파일이나 미디파일을 불러들여 현재 트랙에 삽입한다

[클립 팝업메뉴]

4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Automation)이란 '연주의 흐름과 함께 어떤 음악요소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데 시퀀서에는 그 변화를 곡선 그래프로 기록합니다. 때로는 그 곡선 자체를 오토메이션(또는 엔벨로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미디트랙의 경우에는 오토메이션보다는 피아노롤의 컨트롤창의 활용이 더 많습니다.

트랙	조절기
미디트랙	볼륨, 팬, 뮤트, 미디컨트롤 데이터, 아르페지에이터
오디오/악기/버스트랙	볼륨, 팬, 뮤트, ProChannel(인스펙터의 기본) 이펙터, 플러그인 이펙터/가상악기의 조절기들, FX Send 레벨/팬

[오토메이션의 조절 대상들]

① 오토메이션 만들기

케이워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오토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 컨트롤러에 의한 오토메이션 기록법은 nnn페이지, 클립의 개인 곡선은 nnn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400여페이지 생략] -----